11 1977- 생맥주 시대를 개척하다

생맥주의 맛을 간편하게 맛볼 수 있는 "삿포로 빈나마"를 발매.
큰 인기를 누렸다.



삿포로 생맥주의 변천

(왼쪽에서부터)
1957년 "삿포로 병생맥주"
1977년 "삿포로 빈나마"
1989년 "삿포로〈생〉구로라벨"
1997년~ "삿포로 생맥주 구로라벨"

›› 11 01 열처리 맥주에서 생맥주로

일본에서는 1975년 무렵까지 열처리 맥주 주류의 시대가 오랫동안 계속되었다. 한편, 삿포로 맥주의 통생맥주는 삿포로 라이온 등 비어 홀에서의 실적이 있고, '생맥주'는 삿포로가 맛있다는 평판을 얻고 있었다. 따라서 삿포로 맥주 기술진은 연구를 거듭해 생맥주의 맛을 그대로 병에 담는 기술 개발에 성공. 1977년에 "삿포로 빈나마"를 전국 발매했다.



▲ 1977년에 "삿포로 빈나마"가 발매되자 '빈나마 당(병생맥주 애호가)'이라는 말도 생길 만큼의 사랑을 받았다.



▲ 빈나마의 루트는 1957년에 발매한 "삿포로 병생맥주". 도심부에서는 점차 매출이 둔화되어 가고 있는 한편, 난방이 보급된 홋카이도에서는 큰 호평을 받았다. 홋카이도에 일찌감치 생맥주가 정착했다. 그래서 "홋카이도에는 맛있는 생맥주가 있다!"라는 입소문이 일본 전국으로 퍼졌다.

›› 11 02 이름을 만들어 준 사람은 고객님, 삿포로 생맥주 구로라벨

"삿포로 빈나마"는 깔끔한 맛이 호평을 받아 크게 히트했다. 발매 초기부터 정식 이름이 아니라 라벨이 검다는 점에서 고객님으로부터 "구로라벨"이라는 애칭으로 사랑받았으며, 그 이름이 많은 맥주 애호가 사이로 침투했다. 그래서 1989년에 정식 브랜드 이름을 애칭이었던 구로라벨로 개명. 구로라벨은 고객님께서 이름을 지어 주신 맥주이다.



▲ 1989년 "삿포로〈생〉구로라벨"로 개명했다 (350ml 캔/큰병 633ml)

미국에서 일본산 맥주 No.1



1980년 가을, 로스앤젤레스에서 신규 개점한 한 초밥 바에 삿포로 빈나마 '큰병' 10상자가 배달됐다. 일반적으로 미국에서는 맥주를 '작은병'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배 이상의 용량이 든 큰병은 매우 이색적이었다. 난처했던 점주가 조심스레 큰병의 '빈나마'를 제공하자 의외로 큰 호평을 받았다. 꾸준히 매출을 늘려 1985년에는 드디어 미국에서의 일본산 맥주 시장 점유율 제1위에 올랐다.

